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시크릿 가든' 김성오

"'아저씨'의 악당 맞습니다"

김비서 귀엽다는 말 쑥쓰러워
까칠 사장에 일부러 어눌하게 설정
10년 무명 길었지만 꿈 있어 행복

'아저씨' '자이언트' '시크릿가든'.

지난 한 해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대중을 사로잡은 작품들이다. 배우 김성오의 출연작이기도 하다. 특히 '시크릿가든'에서 그는 발랄하고 귀여운 '김비서'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가 '자이언트'에서 잔인한 사채업자 차부철, '아저씨'의 냉혹한 장기밀매업자 종석을 연기했단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아직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아영이랑도 처음에는 친해지지 못하다 끝날 때 많이 친해졌는데 지금 아마 다시 찍는다면 정말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은 주원이나 라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크릿가든'에서 김비서는 여느 비서와는 다른 귀여운 캐릭터였다.

"귀엽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귀엽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비서에 대한 고정관념대로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도 자기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는 성이 김이고 이름이 비서야. 마침 비서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라고 설명했어요.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이런 사장 밑에서 비서로 살아남으려면 어눌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촬영분의 80% 이상을 현빈과 함께 했다. 그와 현빈이 함께 등장할 때는 친구 같은 편안함이 브라운관에서 느껴졌다.

"첫 촬영 때는 어색했어요. 2~3회 지나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어느 때부턴가 현빈 씨 눈빛에서 김주원이 보이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는 하지만 마음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편해졌어요."

그는 현빈을 프로페셔널한 배우라고 평가했다.

현빈에 앞서 그는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과 호흡을 맞췄다. 비록 원빈의 손에 죽음을 맞는 악역이긴 했지만 사실적인 연기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원빈 씨와 같은 작품을 하게 된 것은 복이라 생각해요. 원빈 씨는 항상 저에게 스타였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막상 만나보니 부끄러워하고 말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친해지면 장난을 잘 쳐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좋았어요."

지금은 히트작에서 비중 있는 조연을 맡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가 맡았던 역할은 험상궂은 놈, 어깨, 제비 등이었다. 2000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그는 10년 가까이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무명 연기자로 살았다. 2009년 SBS 공채 탤런트가 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랜 무명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꿈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해낼 자신은 없었다.

"제대할 때 즈음 서른살까지 후회없이 해보자고 결심했죠. 서른살이 돼서도 이뤄놓은 것이 없으면 미련없이 다른 일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서른살이 되니까 연기에 빠져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름은 알리진 못했지만 처음에 배기량 800cc로 시작했다면 그때는 4500cc까지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35살까지 해보자고 했죠."

올해 그의 나이 만 33살. 35살이 되기 전에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목표는 이룬 셈이다. 그런 그에게도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

"영화 '더 록'에서 에드 해리스가 했던 하멜 장군처럼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악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악역 전문 배우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믿고 악역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연합뉴스

'웃어라 동해야' 도지원

"40대에 돌아간 동심 순수한 안나처럼 9살 아이 됐어요"

"안나는 제가 평소 너무나 하고 싶었던 캐릭터입니다. 세상을 눈처럼 깨끗하게 바라보는 순수한 안나를 연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도지원(43)이 작년 6월 시청률 39.8%로 막을 내린 KBS 주말극 '수상한 삼형제'의 '엄청난'에 이어 KBS 일일극 '웃어라 동해야'의 '안나 레이커'로 연타석 홈런을 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시청률은 높았지만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을 받은 '수상한 삼형제' 때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듯 했던 도지원은 안나로 사는 지금 무척 평온해보인다. 안나를 연기하며 네티즌으로부터 '절대 동안'이라는 별명도 얻은 그는 순수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수상한 삼형제'에서 캐릭터를 좀 순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시청자에게는 무척 강한 캐릭터로 각인됐죠. 그 후 곧바로 안나 역이 들어왔을때 정신연령이 9살이라는 점이 걸렸지만 엄청난과는 정반대의 순수하고 착한 캐릭터라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도지원은 실제로도 안나와 비슷한 면이 많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착하고 여린 심성과 아이 같은 순수함을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 저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당시 순수한 제가 좋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순수함을 잃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너무 알게 되면 제가 변할까 봐 걱정이 돼 또다시 같은 결심을 했고, 연예계에 데뷔하면서도 그 결심을 다시 다졌습니다. 연예계 생활을 하면 분명히 변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적응은 하면서도 제 자아와 가치관은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지원은 발레리나 출신이다. 한양대 무용과에서 발레를 전공한 그는 국립발레단에서 1년 반 정도 활동하다 화장품 모델로 발탁돼 연예계에 입문했다.

화장품 모델에 이어 1990년 KBS 일일극 '서울 뚝배기'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서 도지원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그는 2001년 SBS '여인천하'에서 표독스러운 경빈 역을 맡으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게 된다.

"'여인천하'의 경빈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후 여성스러운 역할이 안 들어왔어요. 너무 속상했죠. 안나 역이 들어왔을 때 정신연령이 9살인 여성을 어찌 소화해야하나 고민이 컸지만 제 도시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도지원은 "20여 년간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고 중간에 슬럼프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며 "몸이 좀 힘들어도 캐릭터를 다양하게 바꿔가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지효 '강력반' 캐스팅
4년만에 안방극장 컴백

다음 달 말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극 '강력반'을 통해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송지효는 '강력반'에서 인터넷 매체의 천방지축 인턴 기자 조민주 역을 맡았다. 밝고 따듯한 성격에 생활력과 근성도 갖춘 캐릭터로, 강력계 형사 박세혁과 인연이 되어 사건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의 드라마 출연은 MBC '주몽' 이후 4년만이다. '강력반'은 개성 강한 강력계 형사들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드라마로 송일국·김승우·성지루 등이 출연한다.

평 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아이엘리시아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문화관 CGV